

# 전주전통한지 우수성 사진 인화에 담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사진 인화 시장 본격 진출... 한지 제작 인화지 제품화해 제공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전주전통한지의 사진 인화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22일 전당에 따르면 아모페퍼시픽이 개점한 설화수의 집에서 진행 중인 '설화수 예술 & 헤리티지 클래스'에 일환으로 전주전통한지를 주석 기념 사진 촬영을 위한 인화지로 제품화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설화수의 향을 듣고 느끼며 자신을 돌아보는 사색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당은 클래스를 운영을 위해 전통한지의 전통미와 매력이 느껴질 수 있도록 가장자리를 살린 한지 인화지를 제작, 한지 사진작가 최영무가 촬영해 준 사진을 출력 제공해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특히 전주전통한지로 제작된 인화지는 한지에 한국적인 감성과 깊이를 담아냈다는 평가와 함께 출력된 사진이 설화수 집에 전시되면 사진 인화지로 역할을 인정받고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도영 원장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예술과 문화유산 정신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설화수의 집'에서 전주전통한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며 "전주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 진출에 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클래스는 아모페퍼시픽이 개점한 서울 북촌의 '설화수 집'에서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 “춘향제에서 남원 낮과 밤 즐겨요”

남원시, 성공 축제 개최 위해 홍보 펼쳐

남원시 홍보팀에서는 오는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펼쳐지는 제94회 춘향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먼저 올 춘향제가 한복을 입고 춘향전 속 등장인물이 되어보는 '춘향, COLOR 愛 반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만큼, 시민과 방문객이 한복을 입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온오프라인으로 송출 중이다. 실제로 남원시 공식 소통 창구인 온라인 채널 유튜브(남원시 TV), SNS(블로그, 인스타그램)와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재미난 춘향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 또한 '형형색색 글로벌 춘향제' 준비로 해외 홍보콘텐츠 제작 공모(문체부)가 올해 선정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글로벌 홍보를 진행할 계

획이며, 올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방문객도 사로잡기 위한 다국어로 표시된 춘향제 홈페이지와 외국인들을 위한 홍보 영상물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 중이다. 특히 4월 말부터 축제가 끝날 때까지 춘향제 소문내기 이벤트 등 SNS를 활용한 이색 이벤트까지 선보일 예정이며, 오프라인 홍보도 다채롭게 추진한다. 이 밖에도 오는 4월 27일 관한루원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형식의 공연형 홍보를 비롯해 도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춘향제 홍보물을 접할 수 있도록 주병(참이슬) 라벨, 전주택시 맵 광고, 관내 경로당 IPTV, 농협 ATM 기기를 활용하는 홍보도 선보인다. 양효상 홍보전산과장은 "축제를 즐기기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형형색색 글로벌 춘향제가 펼쳐지는 만큼, 가족, 연인, 친구 및 국적과



언어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남원을 방문해 남원의 낮과 밤을 다양하게 만나보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부안마실영화관, 부안군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전 개관

부안마실영화관 개관식이 지난 20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마실영화관의 운영을 맡은 (재)부안군문화재단은 개관당일 3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2024년 부안예술회관에서 문을 연 마실영화관은 기존보다 더 넓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부안군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해 문을 열었다. 개관식은 부안군립농악단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현악 4중주단 활의 영화음악 메들리 공연, 내외빈과 영화관 현황 소개, 환영사 및 축사, 테이프 컷팅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마지막 테이프 컷팅식에서는 어린이, 장애인, 청년, 노인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주민을 초대해 마실영화관이 모든 계층의 문화중심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을 모았다. 개관식 종료 후 첫 상영작 애니메이션 <쿵푸팬더4>는 부안군문화재단이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을 고심해 고른 것으로 부안군



민의 기대감 속에 매진되었다. 한편, 마실영화관은 지난 19일 디트릭트(www.dtryx.com)를 통해 온라인 예매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개막영화인 <쿵푸팬더4>와 <고스트버스터즈: 오싹한 뉴욕>과 함께 24일부터 상영되는 <범죄도시4>를 예매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팔복예술공장서 OH! MY 앤디 워홀展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6월 30일까지 팔복예술공장에서 'OH! MY 앤디워홀展'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앤디워홀의 생애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발표된 작품들을 조우하는 것에서 그 흥미와 진지함이 있다. 초기 작가 시절의 일러스트 작품을 시작으로 실크스크린, 책과 LP, 잡지표지 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 외에도 미발표된 작품까지 시계열적으로 작품을 만나보는 점에서 흥미진진하다. 또한 앤디워홀 작품을 재해석한 한국의 미디어 아티스트와 그래픽 아티스트의 작품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 있는 워홀의 이미지 뒤에 감춰진 고뇌와 깊은 사유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는 팔복예술공장 A동에서 진행, 관람료는 무료다. 사전 예약 없이 현장방문으로 관람 가능하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장은성 기자

#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 개최

문화예술의 거리 익산아트센터, 5월 1일~6월 30일 진행

익산시가 원도심 중앙동의 치킨로드 조성에 불을 일으키고 소상공인의 지역 상권과 근대문화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는 문화예술의 거리 익산아트센터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나폴레옹 유물 익산 특별전(展)'을 개최한다. 나폴레옹 유물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소장품으로 고향인 익산시 요청에 따라 흔쾌히 수락해 전시회가 마련됐다. 전시회에서는 공정의 힘으로 일궈낸 영웅의 삶을 상징하는 바이론(이각모자)과 은잔, 훈장, 양피지를 선보인다. 전시유물을 통해 나폴레옹의 명언인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도전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다. 바이론은 프랑스 동맹군이 협찬한 알프스 산맥을 넘어 집념의 승리를 거둔 마랭고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직접 착용했던 모자이다. 불굴의 의지로 프랑스 황제에 등극하고, 시민 법전을 통해 자유·평등·인권의 가치를 후세에 남긴 한 인간의 위대함이 담겨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유물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한 영



웅의 불굴의 의지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시 관람과 더불어 원도심의 근대문화관광, 미식여행 및 중앙시장 장보기 등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체험도 해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고창군이 22일 고창문화원 다목적체험관 증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준공식을 열었다.

## 고창문화원 다목적체험관 증축 완료... 준공식 가져

고창군이 22일 고창문화원 다목적체험관 증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윤준병 국회의원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선언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감사패 증정, 테이프 컷팅 순으로 진행됐다. 고창문화원 다목적체험관 증축공사는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미생활과 여가선용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추진됐다. 공사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9

개월간 진행됐다.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해 3층에 연면적 341.64㎡, 다목적체험관을 증축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군민들의 예술 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강좌와 미술작품 전시, 지역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역문화의 거점 공간으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문화원이 군민 수요에 발맞춰 문화공간을 새롭게 확충했다"며 "고창문화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문화 발전 및 군민의 문화욕구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며 주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